

박경철의 '오디세이아'



“유산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遺産〉

그리스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미스트라’라는 고대도시가 있다. 당시 왕이었던 콘스탄티누스 11세가 터키의 공세로 쓰러지기는 형제국 ‘비잔틴제국’을 지키기 위해 이곳을 떠나게 된다. 비잔틴의 마지막 황제가 된 그는 전쟁터에서 장렬히 전사한 뒤 미스트라는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하지만, 그 덕에 이곳에는 비잔틴 전성기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터키 지배를 거치며 아야 소피아를 비롯한 이스탄불의 성당들은 대개 모스크로 바뀌거나 많은 손상을 입었지만, 이곳은 폐허가 된 탓에 비잔틴 절정기의 건축과 벽화가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석굴암의 불상처럼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프레스코 벽화에 이끼가 끼고 곳곳이 붕괴되긴 했지만, 장기간의 보수 끝에 지금은 원형을 거의 되찾아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모이고 있다.

그런데 미스트라의 주요 수도원 중의 하나인 성모 성당의 한쪽 벽에는 비잔틴 당시의 벽화 대신 근대에 그려진 듯한 인상적인 벽화가 한 점 그려져 있다. 수백

년 된 성화들 틈에 선명한 색채로 그려진 이 그림은 중세의 장인들이 그린 장엄한 성화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작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곤 하는 이이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미스트라 복원 작업에 참여했던 그리스 민중화가로, 부분 훼손된 다른 쪽 벽과는 달리 심하게 손상된 동쪽벽을 복원할 방법이 없자, 직접 자신의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훌륭한 작가의 다른 작품들 감상할 방법은 없다. 그가 그린 다른 작품들은 그리스 독립전쟁 중에 모두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작품은 이곳 미스트라의 벽에 그려진 벽화와 아테네 시정청사에 그려진 벽화 단 두 점 뿐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작품을 보기 위해 출국 당일 그리스 시정을 방문했다. 하지만, 도착한 시간은 오후 세시 반, 이미 시정 문이 닫힌 시간이었다. 내심 불가능하리라 생각하며 경비원에게 내부의 벽화를 잠시 볼 수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불 꺼진 청사 내부를 지나 2층 시장 부속실에 안내했다.

목적은 묻는 부속실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나는 한국인 관광객인데 오늘 오후 출국예정이라, 드미트리우스가 그린 벽화를 지금이라도 볼 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다.” 설명을 들은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미안하다. 지금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벽화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이미 퇴근을 해버렸다.” 안내받는 호사는 고사하고 지금 당장 볼 수 있다는 기대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담당자가 안내한 곳은 놀랍게도 시장 집무실이었다. 그녀는 경비원까지 불러 잡겨진 시장실 문을 연 다음, 시장실 안으로 필자를 안내했다. 벽화는 시장의 집무용 책상 뒷벽에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스스로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녀의 간략한 설명을 들으며 벽화를 감상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다음 물었다. “당신의 친절에 놀랐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장실에 걸린 벽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아무리 관광대국이지만 이것은 너무 놀라운

친절이다.” 그녀의 대답은 이랬다. “이 작품은 우리 그리스의 유산일 뿐 아니라 세계인의 유산이다.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으며 누구든 같이 감상할 권리가 있다.” 예상 외의 답변에 놀라 다시 반문했다. “그림 많은 관광객이 나처럼 벽화를 보러온다면 시장이 일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러자 놀라운 답이 돌아왔다. “벽화를 보려는 사람이 많아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시장실을 다른 데로 옮기면 된다.”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다. 만약 서울시장실에 걸린 그림을 보기 위해 배낭을 멘 관광객 한 명이 퇴근시간 후에 찾아와 “그림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는 늘 사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시장실을 옮기면 된다.”라는 그 당연한 답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과연 우리에게도 찾아올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민주주의의 발상지 아테네인들의 태도를 차라리 비호율이라고 경멸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지식나눔네트워킹 대표)

종교칼럼

오랫동안 여운이 남을 휴가를



서 문 성
원불교 산수교당 주임교무

하는 이들도 많다. 필자는 휴가철을 맞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지는 휴가에 관련된 두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주지하다시피 원불교 교무이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원불교 교조의 탄생에서 원불교 창교 과정, 그리고 원불교의 오늘날까지의 일화들을 수집해 모두 10권으로 된 ‘원불교예화집’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원불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구입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인지 많은 감사의 전화를 받았고,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원불교에 다니는 가족의 이야기다. 가족들이 휴가를 계획하고 어머니가 계산 곳에 모였다고 했다. 여러 가지로 논의하던 중 “을 여름 휴가를 책을 읽는 것으로 보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 무더위에 어디를 가도 특별한 것이 없으니 그것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그래도 다들 휴가를 떠나는데 우리도 떠나지”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집에서 수박 몇 덩이 사서 시원하게 먹고, 콩물국수를 만들어 먹으면서 책을 읽는 색다른 휴가를 경험해보자”라는 가족들의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하여 어머니가 요즘 읽고 있는 ‘원불교예화집’을 가족 모두가 읽기로 했다 고 한다. 서로 책을 읽어가면서 재미있는 대목에서는 모두 같이 읽으면서 함께 웃고, 슬픈 이야기를 읽을 때는 눈물도 흘리는 등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고 했다. 어떤 때는 토론도 하며 옛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날 자신의 신앙과 삶을 바라보는, 너무나 알차고 보람된 휴가가 되었다고 했다. 필자는 그 전화를 받고 고생해서 책을 펴낸 보람을 다시금 느꼈었다.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필자의 이야기이다. 필자는 결혼을 한 원불교 교무이다. 결혼을 연발이 했다. 그러나 근무지의 상황으로 신혼여행을 갈 수 없었다. 정도(원불교 교무 부인)와 상의해 신혼여행을 가지 말고 다음에 여름휴가를 알차게 보내자고 했다. 상황을 잘 알기에 섣뜻 동의

해주었다. 참으로 고마웠다. 동의는 했지만 정도의 마음은 짐작할 수 있었다.

생각 끝에 그 이듬해 여름휴가는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전문박물관을 답사하면서 보내기로 했다. 목포에서부터 전문박물관을 답사하기 시작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강원도까지 둘러봤다. 박물관을 답사하며 그 지방 음식 기행도 함께했다. 각 지방의 특색 있는 향토 음식 기행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늦은 신혼여행이었지만 다양한 박물관을 답사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다양한 시간여행으로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더 중요한 감동은 오랫동안 간직하고자 담으로 ‘전문박물관 둘러보기’라는 책도 출판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여행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한다. 어떤 휴가보다 행복했던 휴가였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즐기면서 충전할 수 있는 휴가를 가끔은 테마를 정해서 보낸다면 오랫동안 여운이 남아 평생 활력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고

‘비엔날레 논란’ 들여다 보기



김 만 석
미술평론가·공간 ‘힘’ 디렉터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미학적 실천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들이지만, 이 논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은 지형에서 사태를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은 단순히 표현의 자유와 검열이라는 대립적 도식 안에서 읽어야 하는 게 아니라, 광주비엔날레가 새로운 민선시장의 취입과 문화정책 변화와의 관계 아래에서 들여다보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시장 취임 전 민선 6기 인수위원회(희망광주 준비위원회)에서는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즉, 광주비엔날레 체제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논란’으로 미디어를 뒤덮은 것은 의 미심장하다는 것.

물론 작가의 작업을 검열하려 했던 광주시의 태도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광주비엔날레가 스스로 강조하는 것 가운데 ‘세계 5대 비엔날레’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앞세운 것은 광주 비엔날레가 갖고 있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야만 한다. 광주 시장의 공식적인 해외업무 소개 기사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서는 광주출신 중국의 3대 음악가인 정용승 브랜드화를

위한 정용승국제음악제와 비엔날레 연계 ‘광주-베이징 문화주간’ 추진 등 중국 현지 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 교류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논란은 광주비엔날레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희석시키는 방식처럼 활용되고 있는 뉴앙스를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 논란에서도 작가와 비엔날레는 한 축이지만, 비엔날레의 좌표는 선명하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달리 말해, 작업에 대한 검열은 광주시가 수행했지만, 대립구도는 오히려 광주시의와 광주비엔날레로 설정되어 비엔날레는 도덕적 정당성을 얻게 되고, 광주시는 파렴치한 방식으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미지로 전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담론이 시와의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됨으로써,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지역 미술은 이 구도에서 또 다시 자취를 감추고 만다.

광주비엔날레가 진정한 의미에서 논란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은 아니였겠지만, 준비과정에서 ‘논란’을 미디어에 제 공한 것 처럼 보이고 이를 통해 현재 광주 비엔날레가 안고 있는 모종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20년에 이르는 역사 동안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적 흐름을 소개하고 많은 관객이 다녀 간 성공한 축제처럼 알려져 있지만, 광주는커녕 한국 작가 소개에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특이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비판에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광주비엔날레의 폐쇄적 체제화가 사실상 지역미술을 무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사실일 터이다.

지역의 예술이나 문화에 대한 열시의 구조는 지역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세계라는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의 가치나 역량을 이미 종결된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 물리적으로 제공 하는 장소와 건축물들을 마련한 이후, 지역의 인프라가 그 속에 기입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거의 없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식민성의 구조화가 여전히 이루어진다고 할까? 거꾸로 이런 식민성이 주어지지 않을 때, 지역이 그 역량이 가능성을 산출할 수 있는 방식이 한국과 같은 반주변부 국가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일까?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다. 아니, 그렇다고 믿고 싶다.

社說

‘만신장이’ 총장으로 보도 차량단속 왜 안하나

요즘 총장로를 무심코 건다가 움찔대는 경우가 많다. 곳곳에 보도블록이 파손돼 움푹 꺼지거나 돌출돼 있기 때문이다. 굵은 구두를 신은 여성이나 노약자들은 더욱 불편하다. 비라도 내린 날이면 더운 돌까지 튀어 보행에 지장을 준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장로 1~3가를 특색있는 명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19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747m(폭 7~8m)에 보도 포장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바다 석재의 색상과 재질, 배수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시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재시공까지 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총장로는 만신장이가 되어가고 있다. 무분별한 차량 통행으로 바닥재가 망가지고 훼손된 터이다. 제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 나뒀구는 보도블록만 수습 개다.

훼손이 심해지자 동구청은 2년 전부터 총장로·금남로·황금로 일대 보도블록 보수 전담반까지 꾸려 3명의 직원을

배치했다. 이들은 공유일과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손상된 부분을 ‘땀질’하고 있지만 블록이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빨라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보도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 왕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도로교통법상 차량통행 금지구역인 이 일대는 입주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밤 11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2t미만의 상품운반차량만 통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교통 경찰이나 불법 주차장 단속기관인 동구청도 민원을 우려해선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장로는 문화도시 광주의 간판거리다. 문화전당이 완공되면 연간 수백만의 외지인들이 찾게 된다.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입주 상인들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상품운반 수레 사용자나 별도의 주차장 조성을 통한 차 없는 거리 운영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산부 교사마저 폭행 당하는 현실이라니

우리의 교육현장이 어찌다 이 지경이 됐는가.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달 23일 임신 6개월의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해당 교사는 입원 치료 후 다행히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이 이 정도까지 붕괴됐다는 게 참으로 압담할 뿐이다.

이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교사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1~2회 걸쳐 때 등을 폭행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다음날 이 학생을 경찰에 고발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사법처리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교권을 재정립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임을 일깨워준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지역 교권 침해 건수는 253건으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육설이 119건, 수업방해 87건, 성희롱을 포함한 지도 불응도 46건에 달한다.

교사가 품행이 방정하고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을 훈계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다. 훈계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말을 했다 하더라도 학생이 임산부 교사까지 폭행했다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권 침해는 교원들의 교육력을 저하시켜 결국 전체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광주 등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도 무관치 않다. 논의 시점인 지난 2011년부터 교권 침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들에 대한 처벌 금지가 교사의 인권 침해에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교 내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빼앗음으로써 교권이 약화된 건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당국은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달콤한 막대 사탕 츄파춥스(Chupa Chups) 한 개를 입에 물고 있으면 기분

들이 좋아진다. 수습까지 맛을 갖고 있어 골라먹는 재미도 있다. 노란색 바탕에 붉은 색 로고가 박힌 포장지를 보면 절로 손이 간다.

츄파춥스는 1958년 스페인에서 탄생했다. 브랜드 이름은 ‘빨대’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 츄파(chupar)에서 따왔다. 유명한 츄파춥스 로고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때는 1969년, 츄파춥스 사장 엔리크 버나드는 한 사내와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다. 버나드는 츄파춥스 로고가 평범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사내는 신문지에 대충 여러가지를 그려보더니 활짝 핀 꽃 모양의 로고를 내밀었다. 또 로고가 잘 보이도록 사탕 위쪽에 붙어있는 조연도 했다. 로고를 만든 이가 바로 스페인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다.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다. 버나드는 츄파춥스 로고가 평범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사내는 신문지에 대충 여러가지를 그려보더니 활짝 핀 꽃 모양의 로고를 내밀었다. 또 로고가 잘 보이도록 사탕 위쪽에 붙어있는 조연도 했다. 로고를 만든 이가 바로 스페인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다.

달리와 츄파춥스

코카콜라 로고는 1886년 코카콜라 개발자 존 펄퍼턴 회사의 경리사원 프랭크 로빈슨이 만든 것이다. 흘러 쓴 듯한 글의 글씨체는 스펠서체로 불리며 지금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농심 ‘신라면’이 출시 28년만에 포장지 디자인과 로고를 바꿔 회제가 됐다. 1986년 선을 보인 신라면은 2013년까지 국내에서 230억 개가 판매됐다. 24년째 시장점유율 1위, 90개 국을 포함한 연간 매출액만 7000억 원이다.

루이비통 로고는 후계자인 아들 조지가 만들었다. 그는 1896년 아버지 이

이전에 바뀐 디자인은 단순함을 강조해 매출 신(왕)과 강렬한 빨간 바탕을 강조했다. 영어 이름 (SHIN RAMYUN)도 새로 넣었다. 사람들에게 각인된 로고와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익숙한 낯익음을 접고, 새로운 변신을 택한 ‘신라면’의 시도가 성공적일지 궁금하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 고 매 케 임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